논평>

웃기는 김포문화재단Ⅱ

-대표이사는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김포문화재단 설립 5년차.
그간 문화재단은 꾸준히 조직 개편과 인원을 늘려 현 2본부, 7팀, 임·직원 포함 69명의, 기초자치단체로는 대형문화재단으로 문화예술의 종합기획이 가능하고, 연구와 교육도 가능하며, 각종 자료발간과 정책개발도 가능한, 각 전문영역이 망라된 조직으로 확장되었다.

'웃기는 김포문화재단Ⅰ' 논평에서 지적했듯 김포문화재단은 덩치만 비대해졌지 여전히 재단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방향도 잡지 못한 채 적극성, 진취성, 개방성, 유연성, 민관협력의 거버넌스(Governance), 미래지향성은 보이지 않고 점점 보수적인 행정의 예속형, 부속형, 하청형, 부역형 조직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게 이번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민선7기 2년차를 지나며 그 중심엔 시민들의 혁신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인 공무원 출신 대표이사와 직원이 있고 기존 복지문화국 산하의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개칭, 경제국 산하로 둠으로써 반자본적이고 반권력적인 문화의 본질과 상치된, 문화가 경제와 자본을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저렴한 인식의 일단을 드러냄은 물론, 이는 시민의 문화권 훼손과 문화자치,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밀실 문화정책의 생산과 시행의 방치로 귀결될 것이다.

올 문화재단에 대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과 예결특위에서의 내년 예산심의 불가, 의원들의 이어진 질타는 소통과 담론의 부재, 지역사회의 염원과 합의의 결실 없이 행한 일련의 사업 작태가 낳은 참담한 결과이고 이에 대해 구차한 변명에 급급한 재단의 모습은 존재 이유를 망각한 직무유기이며 이는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에 어떠한 명분도 이해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김포문화재단은 독립된 재단법인(財團法人)이다.
그 의미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재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상 그 설립이 인정된 공익 법인이라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면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사적 소유권을 부정, 제한하고 공적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화재단은 문화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문화재단이 행정의 수단,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협치, 김포문화의 미래를 기획하고 실행해야 될 막중한 사명과 문화창달, 문화발전,

문화산업진흥 등의 목표와 문화도시, 문화환경 개선, 각 예술 장르 정책, 문화지표조사, 문화행정 평가,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산 증액, 문화외교, 문화예술교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현해야 함에도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관료적인 현 문화재단의 모습으로 전락시키고 사적 관계, 감정이나 자리보전을 위한 권력의 이해관계를 결부시켜 자신과 자기 조직을 위한 문화재단으로 추락시킨 중심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민선7기 1년 연임 후 명퇴하기로 한 구두약속을 실천하시라!
荀子(순자)에서「무능한데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만이며,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녹을 많이 받는 것은 도둑질이다」고 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현명한 자를 추천하기는커녕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시민의 피와 땀으로 무위도식하거나 종국엔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반식재상(伴食宰相-무위도식하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재상)이 즐비하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2020년 민선7기 3년차, 김포시에는 중차대한 과제가 너무 많다. 참으로 정하영 시장은 귀인 편향(歸因 偏向) 하지 마시고 돌이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낡은 것을 과감히 청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의 정치로 '시민행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되길 바란다.

2019년 12월 23일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의 정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Gimpo Civil Action for Political Reform